

오월 이야기

김제섭 글
외국곡

A Em Am Em

새난군 벽그화 이소밭 슬녀에 내가뵈 리까히 는이고 어다대 둠가검 속가에 슬왜쓰 품이러 에리져

C Dm Em A

그슬수 여프많 림게은 언우사 덕는람 을지이 님물죽 어엇어 갈다갓 때네던 아그찬

A Em Am Em

림소란 다녀했 운는던 소눈오 너물월 가을의 을감하 분추늘 과머을 비말보 탄했면 에네서

C Dm Em A

남사새 몰랑날 래했의 우던아 는부침 결모을 보형기 왔-다 다제렸 네들네